

# 해남군, 2020 대한민국 SNS대상 '대상'

### 지난해 최우수상 이어 전남 유일 대상 수상 자체제작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 소통 활발

해남군은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전남에서는 광역과 시·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대상을 거머쥐며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두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국정역점과제로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강화를 추진,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군정시책과 해남의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해남의 매력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공무원이 직접 제작, 출연하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영상으로 제작,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해남군 유튜브는 1년여만에 12만 5,000여회 조회수를 달성했으며, 특히 페이스북 팔로워는 3만 1,000명을 넘어선 전담내 군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활발히



군민과 소통하는 등 군단위에서 보기 드물게 SNS를 통한 군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 강화와 유익한 군정 소식 전달은 양방향 소통과 행정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전국에 해남을 알리고, 군민들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SNS마케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 금호도 전경

## 진도 금호도,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최종선정...가족단위 체험 관광지로 개발

진도 금호도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한 금호도는 '호수를 품은 보물섬' 컨셉으로 생태복원사업, 문화관광자원사업, 주민소득사업, 마을경관정비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자생식물 '생달나무'를 활용한 의료체험 관광, 지역 내 생산된 농수산물 활용 6차 산업 상품개발, 업과 관광을 융합한 어로체험관광, 전통문화체험 등 가족단위 체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인근 신비의 바닷길을 비롯 하동

관광지, 솔비치 호텔 리조트와 연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비교우위 자산인 섬 고유의 자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자원화, 주민공동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 등 2021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최근 진도군 관광여건이 유례없는 부흥기를 맞고 있다"며 "금호도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조성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관광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예약 폭주

### 1인 기준 15만 원 저렴...농촌여행 새로운 모델 '각광'

올해 강진군 주요 관광 군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 강진에서 맘 확 푸소(FU-SO)'가 코로나19 상황 속 청정·힐링 여행으로 각광받으며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체험객과 예약인원은 총 1,012명(체험완료 503명, 예약 509명)이다.

올해 5월 18일에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됐던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 달 간 중단됐음을 감안할 때 대단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 강진에서 맘 확 푸소(FU-SO)'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곳에서 일주일동안 생활하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지역민과의 공감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가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 강진에서 맘 확 푸소(FU-SO)'는 공모사업 지원으로 1인 기준 15만 원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6박 7일 동안 푸소(농촌숙박 및 체험, 농촌방문체험, 조·식식 제공)를 체험하며, 정자집 만들기, 음악장작소 무료 음반제작, 전자전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을 할 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체험객 불편사례 개선을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객 건강문진표 작성, 체온측정, 코로나 위생키트 제공(마스크, 손소독제, 가글, 향균 물티슈 포함)등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강진군에서 웰빙 쌀귀리 국수 드세요"

### 1인분 7천 원 강진에서만 맛보는 저렴한 웰빙식품 호평

강진군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진군의 한 칼국수 전문점에서는 군 대표 특화작물인 쌀귀리로 국수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쌀귀리 국수는 1인분에 7천 원으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강진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쌀귀리 국수는 지난 7월부터 강진군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쌀귀리 가공식품 시식회도 연다. 오는 26일 강진읍사무소 3층 조리실에서 개최한다.

칼국수 전문점인 옥이칼국수가 자체개발해 판매 중인 쌀귀리 국수를 비롯해 강진군에서 시판용으로 개발한 쌀귀리 국수(건면, 생면), 쌀귀리 떡, 식혜, 라떼 등의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개발한 쌀귀리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개선점을 찾아 더욱 상품성 있는 식품으로 발전시



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진군은 강진산 쌀귀리를 CI에 즉석밥 원료로 납품하는 한편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 서민 음식 국수부터 아침식사 대용인 선식, 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 쌀귀리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국 최고의 쌀귀리 생산지로서 강진군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쌀귀리의 주산지 강진군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가공식품 개발을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앞으로도 쌀귀리를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인기

### 코로나19로 신체활동 적어진 주민들 건강관리위해 시작

장흥군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실천 프로그램(self-walking)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걷기실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적어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됐다.

지난 12월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000여명이 참여를 신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모바일 걷기실천은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장흥군보건소'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일상 속 걷기실천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 될 챌린지 미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흥군보건소는 프로그램 참여자 1000명 한정으로 스트레칭 밴드, 만보기 등 신체활동 키트를 제공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만보기를 사용한 자발적 걷기 실천을 권장하고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 생활화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